

## 제25회 한·일(큐슈)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

### 1. 회의 개요

※ 한·일(큐슈) 경제교류회의는 '93년 1회 회의(일본 기타큐슈시)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,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
- 25년간 한국 1,211명, 일본 1,547명 합계 2,758명이 참가

- 1) 목적 : 한·일(큐슈) 지역 간 무역·투자·산업기술 협력 확대  
- 한국과 일본 큐슈(九州)지역의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·기술·인재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,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
- 2) 테마 : '한일 공통의 과제~글로벌 인재활용~'
- 3) 일시 : '18. 11.19(월)~21(수), \* 본회의 : 11.19(월), 인재상담회 : 11.20(화)
- 4) 장소 : 베스트웨스턴 호텔 군산& GSCO(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)
- 5) 참석자 : 양국 정부대표(韓 산업부, 日 큐슈경제산업국) 등 총 71명  
- 한국측 : 산업통상자원부, 한일경제협회 등 37명(본회의 20명, 인재상담 17명)  
- 일본측 : 큐슈경제산업국, 큐슈경제연합회 등 34명(본회의 16명, 인재상담 18명)  
\*인재상담 인원 : 학생, 기업, 위탁업체 및 주최측 사무국

### 2. 주요 성과

#### <회의>

#### ☐ 한국의 청년 취직난과 일본의 고용문제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에 대해 상호협력

- 한국의 취직난과 일본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 산업의 '인재매칭'에 관해 논의하고,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 산업 분야의 큐슈지역 취업 확대 협력
- 경제계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'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'에 대해 구인의뢰서 발굴 지속 협력
- 한국인재·기업정보 공동관리, 취업후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수행

#### <인재 매칭 상담회>

#### ☐ 일본 큐슈지역 구인기업 9사와 42건의 취업 매칭 상담

## ① 2017년 제24회 회의 제안사항에 관한 후속조치에 대해 정보 공유

- 작년 한·일(큐슈)회의에서 한국의 취직난과 일본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 산업의 '인재매칭'에 관해 양국에서 실적을 쌓아 올려가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
-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('18.5.15~16, 도쿄/302명) 공동성명에서 양국 경제인은, 일본의 고용문제와 한국의 취직난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인식을 공유
- 경제계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큐슈경제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IMI국제경영원에서 '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'을 스타트
  - 일본 큐슈지역 기업 14곳에서 구인의뢰서 제출, K-move 스쿨 시행중
- 큐슈경제연합회와 IMI국제경영원 간에 협정서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, 양국 기관간에 지속적으로 '한국 인재 활용에 대한 사업'을 전개
  - 한일 간에는 '상품·자본·인재'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기업인들이 공감하고 있고, 인재교류를 통해 한일이 '하나의 경제권'을 형성을 촉진
- 일본 큐슈지역 기업에게 한국 인재 활용에 관한 정보제공
  - 큐슈지역 기업을 모집할 때, '큐슈의 한국인재 활용과 관련된 사업(웹사이트)'을 첨부해서 한국인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

## ② 2018년 글로벌 인재활용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

### ○ 한일재단의 인재매칭사업 소개 및 향후 과제 설명

- 채용상담회 개최성과('15~'17년) : 일본기업 128사 참가, 청년인재 **146명** 취업

\* 2017년(일본기업 42사 참가 / 청년인재 53명 취업)

\* 2016년(일본기업 44사 참가 / 청년인재 49명 취업)

\* 2015년(일본기업 42사 참가 / 청년인재 44명 취업)

- '18년 추진내용 : 협력기관 방문설명(1회), 인재채용 간담회(2회), 취업설명회(1회), 상담회(2회), 취업박람회(2회), 화상상담회(1회)

- (향후과제) 신규 협력기관 발굴, 인재매칭의 다양화(청년, 시니어), 상시매칭,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,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쿨 운영

### ○ 일한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'기업현장 인재육성사업'에 관해 설명, 큐슈일한경제교류회 활동과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

- 일본계 기업에 23명 입사, 한국 기업에 9명이 입사

	참여 기업 및 단체	응모 학생 수	참여 학생	학생 평가(5점 만점)
2015년	16개사	179명	20명	4.6점
2016년	9개사	162명	16명	4.6점
2017년	28개사	466명	51명	4.7점
계(평균)	53개사	807명	87명	4.6점

◆ 1-3기 수료생의 실태 조사 결과, 23명(그 중 9명은 실습 기업)이 일본계 기업에 입사했으며, 9명이 한국 기업의 입사가 결정됐다고 답변함.

### ○ 한국인재의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일본 기업 취직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

- 한국정부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청년 해외진출을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K-Move 를 추진

- K-move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'한국인 인재 및 기업정보를 공동으로 관리'하는 것과 '사후관리'에 (취업자 사후관리 : '17년 17개 센터 개소)더욱 힘써 줄 것을 건의

- 코트라(KOTRA)가 10.22일 발표한 일본 구인기업 177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인재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향후 한국인재를 채용하고 싶다는 기업이 96%로 매우 높은 비율 차지
- 또한 177개사 중 148개사(83.6%)가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.6%가 한국인 채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음
  - 한국 인재의 장점 : 근면 성실, 일본어 실력, 적극성, 추진력 등
  - 일본기업이 바라는 외국인 인재의 자질 :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, 적응력, 행동력, 사고의 유연성,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흥미 등
- 특히 일본기업들은 취업을 위해 일본어 능력은 기본이며,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힘
- 코트라 지원 해외취업자 근무실태파악 결과보고'를 분석한 결과 2015~2017년 해외취업자 1,572명 중 643명(40.9%)이 국내로 복귀
  - 지역별로는 북미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은 49.8%, 동남아·대양주는 45%, 일본은 33.3%로 나타났음
- \* 북미는 비자 추첨제도에 따라 비자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조기 복귀, 동남아는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로 복귀, 일본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근무 여건과 업무전문성 보장 등으로 장기근속

### 3. 종합평가

- ☐ 한일 공통의 과제인 일자리 확보·한국인재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음

### 4. 향후 후속조치 사항

- ☐ 2019년 차기 제26회 회의는 제18회 환황해회의 중국개최로 한국에서 다른시기에 개최
  - 한일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+상담회 프로그램 유지